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안데스 최초의 문명: 카랄 문명

강성식

페루 수도 리마 북쪽의 바랑카(Barranca) 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문명의 흔적인 카랄(Caral)¹⁾ 유적지가 발견되었다. 수페 강을 품은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건조 지역에 형성된 카랄 유적지는 그곳이 안데스 초기 도시 문명의 발상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던 문명은 안데스의 차빈(Chavín) 문명이나 메소아메리카의 올메카(Olmeca) 문명이었다. 하지만 카랄은 이 두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약 1500-1000년, 마야 문명보다는 3000년 이상이나 앞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석기 시대를 거쳐 후대로 내려오면서 인간은 원시적인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생존을 위한 집단 활동이 필요해지게 된다.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지도자들이 생기는 등 사회 계층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시기인 고대 후기(Arcaico Tardío 기원전 3000-1500년)에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 문명의 흔적이 카랄 유적지다. 페루 중부 지역 곳곳의 해안 지대, 산악 지대, 밀림 지대에서 집단 거주지가 발견되는데, 카랄은 그 중에서도 면적과 건축 단지 등 여러 면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으며, 인근 지역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다. 카랄 문명이 발견됨으로써, 소위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허 지역과 함께, 페루 안데스 지역이 세계 5대

1) 수페 지역에 있다고 하여 카랄 수페(Caral-Supe)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명 태동지의 하나로 인정될지 주목 받고 있다.

1. 카랄 유적지의 위치 및 발굴

1. 위치 및 주변 환경

카랄 유적지는 리마 북쪽 약 180km, 해안에서 약 20km, 해발 350m 지점의 충적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다지 길지 않은 수페 계곡의 중류 지역에 해당한다. 현재 그 일대는 여름철에만 강이 흐를 뿐 연



카랄-수페 문명의 위치

중 건조한 날씨를 보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원형 극장 형태의 건축물 일부가 강물에 휩쓸린 흔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나 지표면 가까이에 지하수 층이 존재하며 부근에서 작은 연못이나 웅덩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기후 및 자연 조건이 지금과는 달랐음을 말해준다. 유적지가 형성된 시기에는 지금보다 강물이 풍부해 건기에도 수로를 통해 수페 강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계곡 습지에는 여러 식물이 밀집해 있었으며, 멀지 않은 과거까지만 해도 각종 조류나 동물이 상당히 폭넓게 분포했고, 겨울에는 계곡 양쪽을 둘러친 안데스 산자락의 언덕에도 동·식물이 풍부했다. 또한 바다가 가까워 교역을 통해 해산물을 구하기 쉬웠고, 여름이면 강 자체도 물고기나 갑각류를 제공해주었기에 사람이 살기에 비교적 적합한 장소였다. 지역 전체 면적은 600여 ha에 이른다.

2. 발견 및 발굴

수페 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1905년부터 일부 고고학자가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에도 1980년대까지 부분적 발굴 작업이 있었고 간단한 소개 글이나 보고서가 간간히 나왔지만 사람들로부터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1994년 리마 산 마르코스(San Marcos) 국립대의 루스 새디 솔리스(Ruth Shady Solíz) 교수가 수페 계곡 중·하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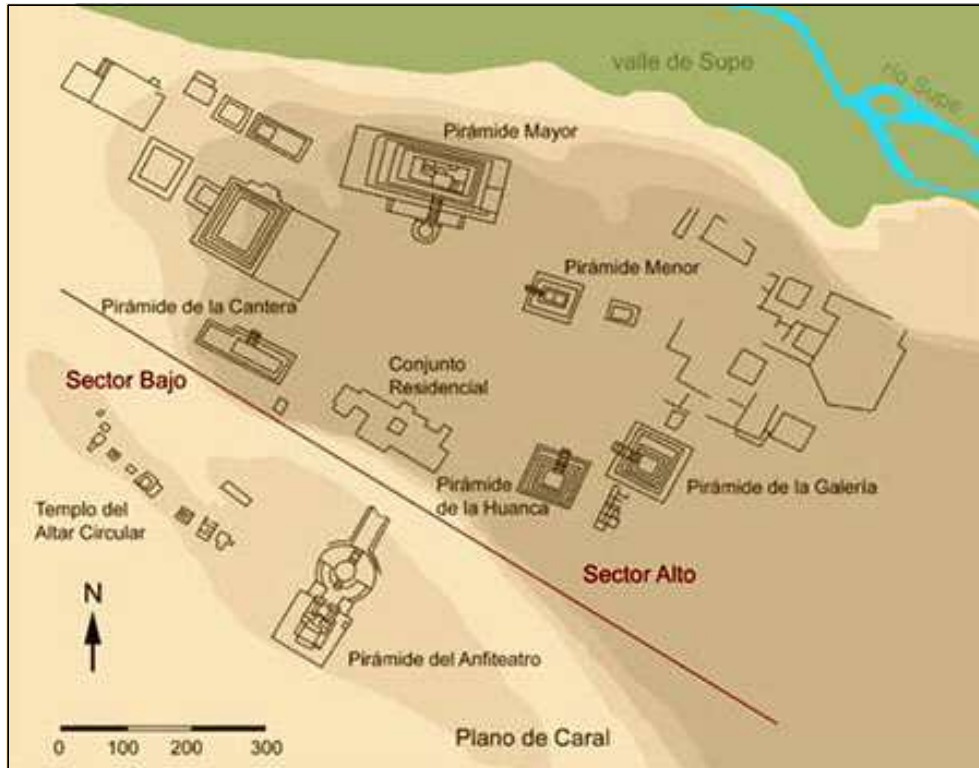
카랄의 원형 광장 유적지(출처: <http://www.perubuddy.com>)

역 40km 가량을 탐사한 끝에 원형 광장을 비롯하여 동일한 경향의 건축물이 세워진 장소 18곳을 찾아냈다. 1996년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장소인 카랄의 발굴을 시작한 새디는 1997년 『페루 문명 여명기의 신성한 도시 카랄』(La Ciudad Sagrada de Caral-Supe en los albores de la civilización en el Perú)를 통해 그곳이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에 세워진 도시라고 주장했다. 그로써 카랄 문명은 사람들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굴은 극히 일부만 진행된 상태며, 자금 문제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연구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카랄이란 명칭은 그 고대 도시 유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현대의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II. 카랄의 건축물과 유물

1. 건축물

대략 50-60ha에 달하는 카랄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기능을 가진 복합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 분포도

건축물 32개 이상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건축물은 종교용으로 보이는 6개의 대규모 피라미드, 크기가 각기 다른 사원, 편평하게 다진 흙 둔덕, 종교 의식 관람 용도로 추정되는 원형 극장과 원형 광장, 일반 주민의 마을로 보이는 8개의 집단 주거지, 제단, 도로, 수로 등이다. 원형 극장과 광장은 내부 직경이 각각 29m, 19m에 달하며, 외부 직경은 그보다 수 미터 이상 크고, 내부 바닥은 원형 테두리보다 낮게 파여졌는데, 규모가 작은 원형 광장의 경우 깊이가 약 2m 정도 된다.

거대한 돌과 흙으로 만든 층계가 딸린 대규모 신전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가 큰 경우 높이 20m가 넘는 신전은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주민의 일상생활도 이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가장 규모가 큰 피라미드 위에는 사제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과 제단이 있고, 규모가 조금 작은 피라미드 위에 있는 방에는 사회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

와 거의 유사한 시기 혹은 그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대가 흘러도 도시 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되었지만 피라미드를 포함해 도시의 건축물 대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개축된 흔적이 드러났다. 구조물은 건축 및 재건축 시대별로 그 양식이나 기술, 재료, 규모, 벽에 칠해진 물감 색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도시를 개축할 때 기존 건축물을 흙과 돌 등으로 덮어버리는 제의 행위를 한 양상도 관찰된다. 주민은 대략 수백 년에서 수천 년 간 농사를 짓고 거주하던 끝에 척박해진 땅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주할 때 살던 곳 일대를 파묻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후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던 이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해 모래 등이 쌓였고, 유적은 땅속에 묻힌 상태 그대로 비교적 온전하게 오늘날까지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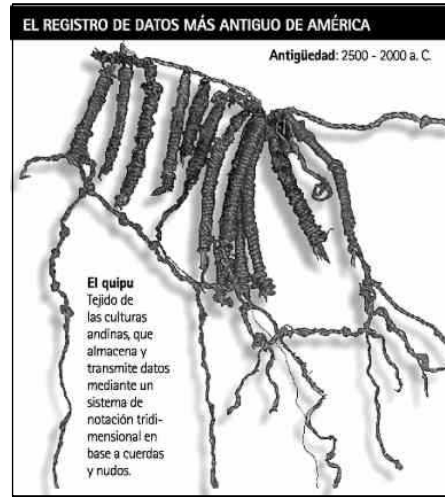
2. 발굴 유물

전체 규모가 150m x 90m에 이르는 원형 극장 형태의 신전에서는 의례에 사용된 제물을 태운 일종의 화로 구덩이가 발견되었고 구덩이 속에서 불에 탄 여러 제물이 출토되었다. 제물을 보관했던 일종의 저장고에는 불탄 타말(tamal), 조개류, 생선 뼈, 진흙으로 만든 작고 둥근 빵, 흙으로 빚었으나 굽지는 않은 조그마한 인물상이 들어 있었고, 그 외에 갈대 또는 동물이나 조류 등의 뼈이나 뼈로 만든 피리 종류도 출토되었다. 주거지에서는 둥근 돌과 벽돌 모양으로 절단된 돌이 담긴 갈대 바구니, 불탄 양식, 채소, 연체동물, 생선, 그물 형태의 모직으로 짜인 작은 공, 고래 등 뼈로 만든 의자 등이 나왔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기단이나 벽 아래에서 신분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복장을 한 어린 아이를 비롯해 수족이 잘린 형태의 성인 남자 등의 유골도 발견되었다. 이런 사실은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사람을 제물로 바쳤음을 말해준다.

3. 최초의 키푸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카랄 지역에서 기원전 2000년 무렵의 키푸(quipu)가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 지역의 건조한 기후

덕에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유물은 잉카 시대에 사용하던 안데스 특유의 매듭을 통한 기록 체계가 이미 카탈 시대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해주었다. 새디 박사는 5000년 전부터 안데스 지역에 키푸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카탈 연구에 동참한 고고학자 카를로스 레이바(Carlos Leiva)는 당시의 키푸를 인류 최초의 문자인 메소포타미아의 썩기 문자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거의 동급인 기록 체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카탈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키푸이다

III. 카탈의 경제와 사회, 정치, 종교

1. 생업과 교역 및 교류

자그마한데다 경사도 완만한 수페 계곡은 복잡한 기술력이나 대대적 노동력 투입 없이도 관개수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갖고 있다. 때문에 카탈 사람들은 간단한 수로를 통해 수페 강물을 끌어다 목화를 비롯해 조롱박, 콩, 감자, 고추 등을 재배했다. 여름에는 어로 활동을 통해 강에서 물고기나 새우 등을 잡았으며, 주변 지역에서 열매나 뿌리 등을 채집했고 습지에서는 갈대 등을 얻었다. 유적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카탈에는 약 3,000명의 주민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면직물 옷에 무명으로 만든 샌들 형 신발을 착용하던 이 사람들은 구대륙의 다른 지역과 달리 구운 토기 제작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해 음식은 구워 먹었다.

한편 카탈은 골짜기 중류 지역에 위치해서 인근 지역과의 교역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해안지대와 강 상류 지역, 산악 지역 그리고 이웃한 골짜기 지역과도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다. 그리고 아마존 지역에서 나는 나무나 달팽이 껍질도 발견되어 상당히 먼 지역과도 교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된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다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라 특히 해안지대와 물물교환이 활발했다. 목화 재배로 얻은 면직물이나 실을 해안지대의 정어리 같은 물고기와 조개나 고둥 등 연체동물로 교환했는데, 해안지대 사람들은 그물을 만들 실이 꼭 필요했고, 카랄 사람들은 해산물을 통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했다. 따라서 주변 지역과는 상호 의존적인 산업 분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카랄 지역과 해안지대의 건축물에서 상당한 동질성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 지역 건축에 동일한 전문가 집단이 관여했거나 최소한 두 지역이 서로 소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인접 지역과 기술 교류도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다지 크지 않은 수페 계곡의 규모와 생산력에 비추어 본다면 대규모 도시 건축은 이웃 계곡 공동체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적 교류 역시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사회 및 정치 체계

카랄은 상당한 수준의 조직화된 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사회 계층 분화 역시 이루어져 있었다. 물물 교환 그리고 잉여 생산과 그 축적 과정에서 정치적인 통제력이 생겨나면서 계층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도시의 건축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일종의 정부나 통치 체계 같은 것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자 계층은 사제, 행정가, 과학자로 일반인들의 잉여 생산물로 생활하며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했다. 이 계층은 종교 활동, 지적 활동, 행정 및 정치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었다. 즉, 각종 의례를 집전하고 이끌었으며, 지식인으로서 수학이나 지리, 의학(약초)을 익히고 있었다. 또한 천문 관찰을 통해 파종이나 수확 시기를 결정했고,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고 제어함으로써 경작지 조성이나 관개수로 건설 등을 주도했으며, 이웃 지역과의 교역이나 유통도 책임졌다. 또한 지도자 계층답게 넓고 큰 집에서 고래 뼈로 만든 의자, 석영 도끼, 목걸이 등을 소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다.

대다수 주민은 농사를 비롯한 각종 노동에 종사하며, 작고 소박한 집에 거주했다.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 중 일부를 지도자 계층에게 제공했고,

종교 건물 건립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즉 일종의 공물, 혹은 세금을 납부하고 부역을 담당하면서 도시의 밑바닥 경제 활동을 책임지던 계층이었다. 근처에 경쟁할 만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군사 조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종교가 사회 통제나 처벌 수단을 역활을 했다.

3. 종교

종교는 강력한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집단 정체성을 형성시켜준 기제였다. 즉 카탈 주민이 기술력의 한계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체제로 극복했다면, 그 과정에 종교와 종교 엘리트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카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활동, 즉 농업, 건축, 행정, 통치 등은 종교적 요소인 공물, 의례, 제의, 제물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원형 극장에 연결된 ‘신성한 불의 제단’을 비롯해 각 신전에 있는 화로 구덩이에서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친 것으로 보아 불은 신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물로는 풍요를 기원하거나 신을 달래는 의미로 보이는 여성 형태의 굽지 않은 조상(彫像), 불탄 천이나 바구니, 태운 음식, 어린이와 어른을 포함한 인간, 수정이나 염주 등 보석에 준하는 것들, 마테 등 약초, 조개류 등이 바쳐졌다.

해나 달, 금성, 줌생이별에 신전을 지어 바치고 제의를 행했는데, 도시의 건축-파괴-재건축 과정도 천문 관측 결과에 따라 진행되어서 도시의 변화 역시 의례적인 맥락과 연관되어 있었다. 건물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도 불에 태운 제물을 바쳤고, 인간을 바치기도 했다. 수페라는 명칭이 죽음의 신이자 하위 세계의 지배자인 수파이(Supay)와 관계있다는 점에서 카탈 사람들은 신이 거하는 장소에 대한 경외감을 품고 있었고, 그 결과 일종의 신정사회를 형성했던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도 있다.

IV. 「완성 교향곡」과 카탈 문명

소위 구대륙의 고대 문명이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

한 것에 비해 카탈 문명은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성장했다. 카탈 문명이 다른 4대 문명과 동시대의 동급 문명으로 추정되고, 또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이제까지 밝혀진 내용에 기초할 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수페 계곡이 안데스 지역 그리고 넓게는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 도시 문명 및 국가 형성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가장 앞선 시대의 유적지라는 점이다. 따라서 카탈 유적지의 발굴과 함께 안데스 문명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과테말라 작가 아우구스토 몬테로소(Augusto Moterroso)의 「완성 교향곡」(Sinfonía concluida)은 과테말라의 어느 노인이 교회에 굴러다니던 악보 봉치에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중 빠진 두 악장을 발견한다는 상상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그 악보를 본 유럽 전문가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그 악보가 슈베르트의 악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마저도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두 악장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한다. 그러자 한낱 손퐁금장이에 불과한 본인도, 중앙아메리카의 보잘 것 없는 나라 과테말라도, 슈베르트의 악보를 세상에 돌려주는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비통해진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악보를 찢어버린다. 카탈 문명이 다른 4대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문명인지 아닌지 단정 짓기에 아직은 이른 단계이고, 또 정확한 면모를 밝히려면 앞으로 더 많은 발굴과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설령 카탈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에 필적할 만한 고대 문명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세계 5대 문명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해가는 과정이 순조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수 세기 동안 아메리카를 얽잡아 보아온 유럽인의 태도 그리고 몇몇 미국 고고학자가 자금 지원 약속을 미끼로 연구의 공을 가로챈 일이 있었다는 새디의 증언 앞에 씩씩하게 피어오르는 일말의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강성식 — 서울대학교 강사